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경 이해

-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을 중심으로 -

강희천*

1. 서언

아동을 위한 성경과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무엇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아동에 관한 정확한 이해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동이나 성인이든 관계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규정해 온 신학적 인간관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기의 삶의 형태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성경의 번역 또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별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중시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의 내재적 특성들을 발견하고 그 특성들을 성경 해석의 구체적 형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현상학적 인간관이 널리 수용되는 추세와 더불어, 성장(growth) 혹은 발달(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동기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아동의 인지 활동에 관한 연구와 장 삐아제의 인지 구조 발달 이론(1926, 1932)을 수용하는 맥락에서, 아동을 위한 종교 교육의 형태를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은 아동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업으로 이어지고 있다.¹⁾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R.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1964)²⁾,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1981)³⁾, 프리츠 오저의 “종교적 판단 단계설”(1988,

*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

1) A. W. Brown, "Some Records of the Thoughts and Reasoning of Children," *Pedagogical Seminary*, No. 2 (1982), pp. 358-396; E. Barnes, "'Theological Life of a California Child'," *Pedagogical Seminary*, No. 2 (1982). pp. 442-448,

2) 종교적 사고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에 관한 청소년들의 이해 형태가 또는 종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형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밝혀 보려 했던 최초의 경험적 연구였다. R. G.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3) James W. Fowler에 의해 발표된 “신앙 발달 단계설”은 미국 동부 사회에 거주하는 4백여 명의 표본 대상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토대 위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

1991)⁴⁾, 그리고 10,000여명의 이태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religious concepts) 형성 과정을 조사한 비아넬로(1985, 1989)의 연구⁵⁾들을 들 수 있다. 또한 3,000여 명의 핀란드 아동을 표본 대상으로 수행된 K. 타미넨(1988, 1991)의 연구 결과도 그 동안 학문적 연구의 주요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던 아동기의 종교 심리적 특성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⁶⁾

본 글은,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번역)의 작업은 아동의 종교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먼저 아동기의 종교 심리, 특히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의 형태와 과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한다(II). 그 다음 본 글은 아동의 성경 이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종교적 언어 및 비유, 은유, 신화 등에 관한 아동들의 해석상의 특징을 살펴본다(III). 끝으로 본 글은, 이 같은 아동기의 종교 심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번역)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려 한다(V).

2. 아동기의 종교 심리

2.1. 아동기의 하나님 개념

2.1.1.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과 하나님 개념: 라이트와 코퍼의 연구

관심과 관계적이며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의 신앙(faith)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발달되어 가는지를 규명하려 했던 학문적 시도였다.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신앙 발달 단계 이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위해서는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특히 Parts I-II 참조

4) 스위스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종교적 판단(religious judgement)의 형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려 했던 연구이다. Fritz Oser and Paul Gmuender,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Approach* (Birmingham, Ala. : Religious Education, 1991).

5) Ronzo Vianello & M. Martin, "Belief in a kind of Justice Immanent in Things: A Revision of the Piagetian Hypothesi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No. 46 (1989), pp. 57-61과, 같은 학술지에 수록된 그들의 논문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pp. 97-104) 참조

6) K. Tamminen, *Existential Questions in Early Youth and Adolescence, Research Reports on Religious Education C5/1988*. Institute of Practical Theology, University of Helsinki; *Religious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Youth*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1991).

성인들과의 상대적 비교에 있어 아동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개념 (idea of God)”을 형성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여 아동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며,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관한 연구는 지난 1세기 동안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시도되어 왔으나, 그 중 라이트와 코퍼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하나님에 대한 아동들의 신앙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발달)되어 가는지 추적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 2-3세의 유아들은 하나님을 주로 자연, 교회, 하늘 등 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마술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을 돌보아 주는 존재로서만 이해하고 있음에 반해, 만 4-5세로 접어드는 아동들은 하나님을 큰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점차 이해 보인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만 4-5세의 아동들로부터 표출되는 대표적인 하나님 개념은 권선징악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상이나 벌을 내리는 존재로 이해되며,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혹은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지니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개념은 곧이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만 6-7세에 다다른 대다수의 아동들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라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한 특정의 질서에 따라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라는 개념을 지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 중 단지 소수만이 영 (spirit)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사랑(love)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습득하기 시작하며, 또한 특정의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는 과거의 이해 형태(구체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추상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 8-9세에 다다른 대다수의 아동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기 시작하며, 또한 전지(all-knowing) 또는 전능(all-powerful)이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구성하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동들은 하나님의 일(혹은 교회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라이트와 코퍼의 서술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는 아동기의 하나님 개념은 만 10-11세에 이르러 괄목할만한 큰 특징을 보이는데, 곧 이 연령의 아동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지녀온 종교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 12-13세로 접어들면서 “신인동형론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대다수의 아동들은, 그 대신 전지, 전능, 편재 등과 같은 추상적 속성(attributes)으로써 “하나님 개념”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그들 자신이 터득한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신앙공동체)의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하나님 개념”과 유사한 것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2.1.2. 아동의 인지 능력과 하나님 개념 : 비아넬로의 연구

비아넬로(1970)와 동료들의 연구는 만3-14세의 아동들 중 로마 카톨릭의 배경을 지닌 약 10,000여 명의 이태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지 조사, 개인 면담 및 보조 자료들의 분석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연구로서, 그 목적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곧,

(1) 대다수의 아동들이 별 어려움 없이 습득하게 되는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s)은 어떠한 것인가?

(2) “종교적 개념” 중 아동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부되는 것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삐아제에 의해 아동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규명된 성향들, 즉 자아중심적인 인지 형태 (egocentrism)나 마술적인 사고 형태(magical thinking) 등은 아동의 “종교적 개념” 형상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가?

(4) 아동들은 “종교적 개념”을 삶(일상생활)과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는가?

(5) “종교적 개념”의 구성 형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20여년 간의 연구를 통해 도달하게 된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는 곧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이해 형태가 그들의 인지(cognitive)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⁸⁾ 다르게 서술하여 하나님에 관한 아동의 인지(이해) 형태는 모든 다른 대상에 대한 그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형태가 곧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초인(superman), 창조자(creator), 마법사(magician), 그리고 부모라는 4가지의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기에 표출되는 “하나님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 6-7세 사이의 아동들은 하나님을 거인, 마법사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invisible man)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나, 만 8세 이후에 이르러서는, 아래

7) H. D. Wright and W. A. Koppe, "Children's potential Religious Concepts," *Character potential*, No. 2 (1964), pp. 83-90.

8) K. Tamminen, R. Vianello, Jean-Marie Jaspard and Donald Radcliff, "Th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pp.57-58.

의 도표- I에서 예시되듯, 서서히 “영(spirit)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니기 시작한 뒤, 만 11세 정도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표-I : 하나님에 관한 이해 형태의 변화와 그 연령 분포도⁹⁾

하나님	연령	4	5	6	7	8	9	10	11 (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100	100	96	64	12	8	4	-
특별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	-	4	36	78	42	14	4
영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	-	-	-	10	46	62	47
영으로서의 하나님		-	-	-	-	-	4	20	49 (명)

신인동형론이라는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종교적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인지적 전환 과정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인지(이해)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비아넬로 연구진에 의해 서술된 또 다른 연구 결과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아동기의 종교 심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아동들의 이해 형태로부터도 추론해 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해 형태는 아래와 같다. 즉 만 6-7세의 아동은 주로 전지(omniscience)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함에 반해, 만 8-9세의 아동은 주로 전능(omnipotence)이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재(omnipresence)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형성하려는 특징은 만 10-11세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청년기의 연령으로 접어들게 되는 상당수의 아동들로부터는 이른바 삐아제에 의해 인지 발달의 제 4 단계라고 분류된 “형식적 조작 사고(formal operational thinking)”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채 청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비아넬로는 지적했는데, 그 구체적인 연령분포도는 아래의 도표 -II와 같다.

도표-II :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해 형태와 그 연령 분포도 10)

하나님의 속성	연령:	4	5	6	7	8	9	10	11 (세)
전지(Omniscience)		8	33	79	95	100	100	94	84
전능(Omnipotence)		-	17	31	56	81	83	81	64
편재(Omnipresence)		-	-	-	-	-	17	33	79
영(spirit)		-	-	-	-	-	4	20	49 (명)

9) Ibid.

10) Ibid.

2.1.3. 미취학 아동들의 신 개념(하나님 혹은 예수)에 대한 기타 연구

카벨레트(Cavellett)의 연구(1983)에 따르면 3-6세까지의 아동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에 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된다. 곧 그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성경적 상징 그리고 예배의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제에 관련된 마일히오프(B. Mailhiot)의 연구(1962)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곧 종교적 가정교육을 받은 4-6세의 캐나다 키톨릭 아동들은 아기 예수의 그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특기할 점은 그들에 의해 이해된 예수의 모습은 청년(youth) 혹은 성인(man)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였다는 점이며, 또한 그 그림에 관한 반응도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¹¹⁾

만 6세의 아동들로부터 발견되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는 존슨(J. F. Johnson, 1955)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만 6세의 남녀 아동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조사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동은 하나님을 “하늘에 (in the sky)”, 또는 “천국”에(in heaven)”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역할을 창조자(creator), 수호자(protector), 도덕적 심판자(moral judge)로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역할과 유사하게 이해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그는 꽃을 만든다”는 창조자(creator)의 역할, “하나님은 너에게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요정(fairies)들 - 즉 마술(magic) - 을 갖고 있다”는 수호자(protector)의 역할, 그리고 “그는 너에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다”는 도덕적 심판자(moral judge)의 역할이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주요 이해 형태라고 존슨의 연구에서는 기술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만 6세의 아동 대부분이, “그는 하나님이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또는 “그는 왕 중의 왕이지요”라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답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아동들의 신 개념에 대한 대답은 확신적인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상투적인 언어로써 표현(verbalem)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는 만 6세의 아동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이해는 주로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의 치유능력,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신 예수의 행적에 주로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불완전한 수준에 머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초인간(superhuman)

11) B. Mailhiot, "And God became a child; the reactions of children and child-groups under school age," *Lumen Vitae*, 16 (1962), pp. 288-288.

으로서의 예수와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사이의 혼란, 혹은 지상에서의 존재와 천국에서의 존재라는 2가지 형태의 모습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인식적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삐아제가 지칭한 “전조작기적 사고(pre-operational thought)”에 머무는 아동들의 인지적 모순성(inconsistency)은 성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어휘들을 모방하여 사용하려는 그들의 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도 보인다. 이를테면, 많은 수의 아동들은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된 요셉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두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당혹해 한다고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발견을 근거로, 존슨(1955)은 순수한 언어적(verbal) 의미로서만 구성, 전달되는 성경 이야기들은 사실에 있어 피상적인 학습만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충분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제한된 형태로 전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¹²⁾

2.2. 아동기의 신앙 개념과 발달

2.2.1. 연령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내재적 정의” 개념의 수용

1932년 삐아제는 모든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인지적 특성을 규명하려 했다. 그는 “사과를 훔쳐 도망치던 두 명의 아동 중 하나는 붙잡혔으며, 다른 한 명은 강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 반응에 대한 연구의 결과, 즉 만 6-8세의 아동 중 86%가 그리고 만 11-12세의 아동 중에는 34%만이 사과를 훔친 뒤 물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 응답을 근거로 하여, “내재적 정의”에 관한 신념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는 현상을 지적하였다.¹³⁾

그러나 1970년대 말 비아넬로 연구진에 의해 시도된 연구에 의하면 “내재적 정의”의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도는 만 6세 아동의 경우 14-17%, 만 7-8세 아동의 경우에는 19-58%, 그리고 만 11-12세 아동의 경우에는 50-64%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삐아제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비아넬로는 그 원인을 설문지에 응답한 표본 대상자들의 변화에서 찾고 있는데, 곧 삐아제의 연구 이후 지난 50여 년 간 실시된 종교 교육의 형태가 “내재적 정의”에 관한 아동들의 신념 및 이해 형태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즉 아래의 도표-III이 예시하듯, “내재적 정의”

12) J. F. Johnson, *An Inquiry into some of the religious ideas of six-year-old children*, Dip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1955)

13) Ibid., pp. 65-66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도는 종교 교육의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종교 교육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참여한 아동들은 “내재적 정의”에 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III : “내재적 정의”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와 종교 교육과의 상관성¹⁴⁾

종교 교육의 분량	연령:	4-5	6-7	8-10
평균 이하		25%	29%	33%
평균		34%	38%	45%
평균 이상		44%	50%	54%

위에서 예시한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된 점은 기존의 빠아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종교적 개념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학습 환경적” 요인이 경시되었으며, 또한 “종교 교육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종교 교육의 형태와 기간이 아동의 종교적 개념의 형성, 특히 “내재적 정의” 개념의 이해에 팔목할 만한 차이를 야기 시키는 중요한 변수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연령의 변화에 따른 “기도” 개념의 차이

1974년 발표된 타미넨(K. Tamminen)의 연구는 기도, 성경, 죽음과 사후의 세계 등에 관한 아동들의 이해 형태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실험의 표본 대상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만 7-16세의 청소년 3천여 명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루터교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며, 학교에서도 루터교적 종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타미넨이 선정한 연구 방법은 특정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어느 날 앤디(Andy)는 그의 동생과 함께 최근 구입한 보트를 타려고 바깥에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폭풍이 밀려 올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들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트 놀이를 즐겼던 그 형제들은 곧이어 천둥을 동반한

14) Ibid.

폭풍우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에 쌓인 앤디는 자신과 동생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강물의 파도는 그들이 타고 있던 보트를 거세게 밀고 가 결국 큰 바위에 부딪히게 했으며, 그 결과 그 보트는 크게 파손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두 형제는 수영으로 강가에 도달했으며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 과연 그들이 ①“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¹⁵⁾를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사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라는 항목을, ②“징벌적 물활론(punishing animism)”¹⁶⁾을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앤디가 부모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항목을, 그리고 ③“보호적 물활론(protecting animism)”¹⁷⁾을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만일 앤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큰 불행이 닥쳤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타미넨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각자 해당하는 항목 모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이는 곧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라 “내재적 정의”, “처벌적 물활론”, “보호적 물활론”을 믿는 강도나 성향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이다.¹⁸⁾

1986년 타미넨은 또 다른 표본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10여 년 전과 동일한 질문을 실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1974년의 연구 결과에 비해 1986년의 결과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2가지 연구의 중심적 가설인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개념의 이해 형태가 변화한다”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여 서술하자면, 핀란드 아동들은 아동기 초기에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나, 아동기의 후기 및 청년기로 접어들 때에는 그 같은 신념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기도의 효력”에 관한 타미넨의 연구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연구는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관계를 아동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의 형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15)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 :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16) **징벌적 물활론(punishing animism)** : 하나님의 심판적 활동은 자연 현상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난다고 간주하는 것

17) **보호적 물활론(protecting animism)** : 하나님의 보호 활동 역시 자연현상 같은 것을 통해 노출된다고 간주하는 것

18) Kalevi Tamminen, R. Vianello, Jean-Marie Jaspard, & Donald Radcliff,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1988), pp. 65-68.

19) *Ibid.*, pp. 68-69.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목적 아래 행해진 것이었다. 만 7-10세의 응답자 중 약 50%는 ①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를 선택했고, 그 중 25%는 ②하나님의 간접적인 중재를 선택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①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②하나님의 간접적인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만 13-16세 응답자의 50% 정도가 ③하나님의 영향력 행사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④하나님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아래의 도표 IV는 이를 보여준다.²⁰⁾

도표 IV : 기도의 효력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변화²¹⁾

확신의 정도	연령:	8	9	10	11	12	13	14
분명히 믿음		44	47	32	19	8	6	8
그럴 수 있음		33	23	35	33	39	36	45
말할 수 없음		18	23	22	34	26	31	26
거의 안 믿음		0	5	7	6	13	8	9
전혀 안 믿음		5	3	5	7	14	18	11
합계(단위: 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아동기의 성경 본문 이해

3.1. 아동의 일반적 이해 능력

3.1.1. 아동의 인지 능력과 성경 이해

존슨(M. A. Johnson, 1973, 1974)은 아동의 인지 능력과 성경 이해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루터교 미션스쿨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독교적 삶, 종교적 교리, 종교적 언어 및 성경 본문의 구절들에 관한 아동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5개 중학교(American Lutheran Junior High Schools)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Confirmation Progress Test와 다른 성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과는 곧 아동들의 종교적 지식, 인지적

20) Ibid. p. 65.

21) 도표 IV는 편의 상 본래의 도표를 변형시킨 것이다.

능력 및 학과목의 성취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식이나 학과목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들로부터는 내재적 종교적 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또한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환언하여, 아동들은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교적 지식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란 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의 칭찬 혹은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일련의 “외재적 종교적 성향(*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과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한편, “외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로부터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곧 종교적 지식을 습득하려는 관심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고자 하는 관심 사이에는 팔목할 만한 상관관계성이 드러난 점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상당수의 아동들이 종교적 지식에 관심을 갖고 그를 배우려 하는 성향은 하나님이나 종교 그 자체에 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 지식을 많이 지니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성인(부모나 교사)의 칭찬이나 인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Confirmation Progress Test*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외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그들의 관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만을 선택함으로써, 종교적 지식 - 이를테면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용서 등의 개념 - 그 자체보다는 종교의 사회적 측면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내재적 종교적 성향”을 지닌 아동들은 그들의 관심이나 필요(*needs*)를 그들의 종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리고 종교적 지식 자체에 관한 학습에 더 동기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중요한 점은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그들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종교 및 성경 학습을 통해 습득한 특이한 “종교적 지식”과 그들의 “종교적 성향”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²²⁾

3.1.2.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관한 이해의 정도

머피(R. Murphy)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아동들은 성경적 사건과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역사적 연대순이나 인물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지닌다고 서술된다. 만 8세 이전의 대다수의 아동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22) M. A. Johns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Knowledge and Selective Cognitive and Personality Variables*, D.Ed. thesis, Temple University (1974).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명명(naming)조차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8세 이전의 아동 중 어느 누구도 성경적 이야기를 시간적 개념과 더불어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시간적 인과 관계를 종교적 사건과 상황 이해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들 중 몇몇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관한 이름을 기억하거나 명명하기는 했으나, 사실에 있어 그들은 그 인물들과 예수와의 관계를 시간적 연계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만 8세 이전의 대다수의 아동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간적 축에 의해 설명해 온 신학적 구원사 및 예수의 출현에 관한 논리적(시간적) 상관성에 관한 이해가 거의 부재했다는 것이다.²³⁾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성경적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그리고 연대순(chronologically)으로만 가르칠 때 그와 같은 학습이 요구하는 사고 방식 때문에 아동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 8-10세의 아동들의 경우, 사울 왕과 사도 사울을 혼동했으며, 예수와 모세를 동시대의 인물로 오해하기도 했다. 또한 공간적(지리적)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도 동일한 오해와 어려움이 표출되었는데, 곧 성경에 기록된 팔레스타인이 영국 웨일즈의 카르디프(Cardiff)로부터 멀지 않은 장소로 이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만 4세의 아동들은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으나, 그 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에 대한 개념이 점차 익숙해지고 그 결과 예수 혹은 하나님이 그들 곁에 머문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획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머피는 성경의 교육은 아동들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 실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아동들은 그들이 접하는 성경 교육 혹은 종교 교육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중 정서적(feeling)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 말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 - 효과적인 학습 내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⁴⁾

3.2.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아동의 이해

23) R. Murphy,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Educational Studies* 4, 1 (1978), pp. 19-22.

24) R. G. Goldmann, "What is religious knowledge?" *National Froebel Foundation Bulletin*, No. 117 (1963).

3.2.1. “비유”에 관한 이해 수준

예수의 교훈과 비유 중 과연 어느 것이 아동들의 이해에 있어 용이한 지를 밝히려 했던 프랭클린(1928)은 그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했다. 곧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시작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에 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과부의 동전에 관한 비유였으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였다. 이러한 비유들과 견주어 볼 때, 예수의 교훈은 아동에 있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비유의 이해에 있어 여학생들은 남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만 16세에 이르러 그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부터 발견되는 특기할 점은 비유에 관한 남학생들의 이해력이 특정 시기에 증진된다는 점이다. 곧 그들은 만 8-11세 그리고 13-16세 때에 이해의 속도가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느렸으나, 그에 반해 만 11-13세 때에는 괄목할 만한 이해력의 증진 현상을 보였는데, 프랭클린은 이를 가리켜 잠재적인 내적 능력의 포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프랭클린의 설명은 기존의 학설과 구분되는 것이었는데, 곧 성경에 기록된 비유에 관한 이해력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인 영향, 즉 종교적 학습경험과 가정환경 및 예배의 참석률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진된다고 알려진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능력은 독립적인 변수, 이를테면 잠재적 내적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교훈이나 비유 등에 관한 이해는 단순히 예배에의 참석과 같은 “외적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잠재 능력(정신 능력)”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²⁵⁾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형태는 비히크(G. W. Beechick, 1974)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표되었다. 그는 만 7-11세 사이의 침례교 미션스쿨의 학생들에게 3가지의 비유(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부자 농부, 그리고 예레미야의 토기 비유)를 제시한 후, 뼈아제 형식의 면담을 실시했다. 학생들의 답변으로부터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수준과 연령 사이의 “선형적 연관성(significant linear relation)”을 발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들은 행동에 대한 유비(analogies)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이 행위자에 대한 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유비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5) S. P. Franklin, "Measurement of comprehension difficulty of the precepts and parables of Jesus," *The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aracter*, Vol. 2, No. 1 (1928).

학생들로부터 조사된 3가지 유형의 반응은 삐아제에 의해 주장된 3단계의 인지 발달과 일치했다. 즉 첫 번째 유형은 만 7세에 도달하게 되는 직관적 단계(intuitive stage)의 능력이며, 두 번째 유형은 만 8-10세에 획득하게 되는 구체적 조작적 단계(concrete operational stage)의 능력이고, 세 번째 유형은 형식적 조작적 단계(formal operational stage)의 시작과 더불어 지니게 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표본 학생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 유형(수준)까지의 능력은 매우 가파른 발달 곡선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만 7-11세 사이에서 두 번째 유형(수준)에서 세 번째 유형(수준)으로 진입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완곡한 발달 곡선을 보였다는 점이다.²⁶⁾

성경의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은 머피(1977a, 1979)에 의해서도 측정되었다. 그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언어로써 재구성된 여섯 가지 비유(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비유, 씨뿌리는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중 네 개를 선택하여 만 6-11세 사이의 스코틀랜드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유에 관한 이해 능력을 조사해 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응답된 아동 중, (1) 이해력이 가장 낮은 첫 번째 수준에서는 비유를 사실(fact)로서만 이해했으며, (2) 두 번째 수준은 그 비유에 관한 단순한 이해만을 보여준 반면, (3) 이해력이 가장 높은 세 번째 수준에서는 비유를 우화적인(allegorical) 이해능력을 통해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머피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이해에 있어 점차 우화적인(allegorical) 이해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발달 과정은 비유의 내용 그 자체, 그 비유가 전달되는 형태, 그리고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를 측정하는 조사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²⁷⁾

성경적 비유에 관한 아동들의 또 다른 이해 형태는 래드클리프(D. Radcliff, 1987)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표되었다. 성경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의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이전의 아동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과 물체(objects)에 집중하는 상상적인(imaginative) 이해와 자아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그들은 사실과 환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주변의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26) G. W. Beechick,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ables: a Developmental Study*, EdD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1974).

27) R. Murphy, "Does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ables develop in stages,?" *Learning for Living*, 16 (1977) pp. 168-172;

R. Murphy, *An investigation into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aged between six and eleven years*, PhD thesis, University of St. Andrews (1979).

에 반해 만 5-8세의 아동들은 “구체적 조작 논리”를 가지고 조직 분류하며, 관계성을 배우고, 간단한 구체적 유비(analogy)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후 아동들은 10세 이후 사춘기와 성인기의 특성인 “인습적 사고”를 통해 비유를 이해,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로 발견되는 성향은 아직도 인습적인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일관성 없는 논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해력의 한계는 만 18세를 전후한 연령에 이르러서야 비판적, 성찰적 유형(reflective style)의 습득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곧 그들은 성경적 내용과 해석, 그리고 기존의 인습적 해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구절의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배타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비유를 포함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인지적 투쟁”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래드클리프의 주장이다.²⁸⁾

3.2.2. “은유(metaphor)”에 관한 이해 수준

성경적 언어는 주로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측면과 동시에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테셀(S. M. TeSelle, 1975)는 은유적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성경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달리 서술하여, 그에 의하면, 성경은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 기술적 용어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은유적 언어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은유적 사고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은유적 사고”란 단순한 시적 표현 혹은 원시적인 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시도인 것이며, 이 같은 시도는 신학이라는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어지는데, 이 점에 있어 신학은 비유적인(parabolic)인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²⁹⁾ 이렇게 볼 때, “비유(parable)”는 이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문학적 장르로서, 특정의 의미만을 지시하는 제한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라, 그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유적 의미를 폭넓게 적용하게 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비유 혹은 은유적 언어로써 구성된 성경은 단지

28) D. Radcliff, "Teaching the Bible developmentall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7 (1987), pp. 21-32.

29) A. McGrady는 은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6가지 필요한 인지적 활동들을 인지(recognition), 이해(comprehension), 생산(production), 연장(extension),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라고 했다. A. McGrady, "A Metaphor and Model Paradigm of Religious Thinking,"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9 (1987), 84-94.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의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 결단을 하게 하는 매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³⁰⁾

이와 유사한 주장을 아동기 종교 교육에 연결시킨 E. R. 굿이너프(Goodenough)와 E. W. 굿이너프(Goodenough)(1962)에 의하면, 아동의 종교적 경험은 은유적 언어와 상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은유적 언어 혹은 은유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종교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은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 성경의 언어가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본래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신앙적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종교 교육은 앞서 말한 은유적 언어나 혹은 상징의 본래적 의미를 제한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들로 하여금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한성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³¹⁾

은유적 언어 혹은 상징에 관한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한 베리만(J. W. Berryman, 1979)은 아동기 종교 교육에 있어 비유에 관한 제한적이며 지시적인 해석형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즉 현재의 종교 교육 현장에서는 상징적 교훈이 “나-당신(I-Thou)”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나-그것(I-it)”이라는 차원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유적 언어 혹은 상징의 폭넓고 생동감 있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 3세의 아동이 선한 목자의 그림 앞으로 걸어가서 예수가 안고 있는 양을 가리키며, “이것(양)은 나야”라고 말했던 경우를 지적한 베리만은 종교 교육 현장에서의 상징적 교훈은 “나-당신(I-Thou)”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유란 은유를 언어로써 확장시킨 형태라고 주장했던 그는 아동들로 하여금 성경에 깔려 있는 “은유적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은유적 경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 이를테면 선한 목자의 경우, 풀, 물, 위험한 장소, 잃어버린 양, 그리고 늑대가 -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들은 그림 그리기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위에서 예시한 자료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적 전통의 표상(images)에 친숙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³²⁾

30) S. M. TeSelle, *Speaking in Parables: A Study in Metaphor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31) E. R. Goodenough and E. W. Goodenough, "Myths and symbol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57 (1962), pp. 172-177.

32) J. W. Berryman, "Montessori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75 (1980), pp. 294-307.

3.2.3. “신화”에 관한 이해 수준

신화에 관한 아동의 종교적 이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도란(F. D. Doran)의 학위 논문이다. 그는 다음의 5가지 신화를 - 이집트의 Ra의 창조 이야기, 수단의 Juok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Zeus와 Alkema에 의한 Hercules 탄생 이야기, Cymbele에 의한 Attis의 탄생, 결혼, 파괴,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 가지고 만 7-15세의 청소년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그는 다음의 5가지 수준의 신화에 대한 이해 형태를 발견했다. 즉 1) 불확실성(uncertainty)의 수준, 2) 불신앙(disbelief)의 수준, 3) 문자주의(literalism)적 이해의 수준, 4) 이성적 반응(rational responses)의 수준, 5)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s)의 수준이 그것이다.

또한 창조신화에 관한 아동의 종교적 이해를 조사한 그리어(1972b)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곧 만 6-17세의 청소년들과 창조신화에 관한 토론을 한 그리어는 신화의 이해에 있어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형태를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1 단계: 가장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창조에 관한 그들 자신의 해석에 관해 비록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았으나, 창조신화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 단계: 만 9-13세의 아동들은 과학적 지식과 신화적 지식의 이중적 혼합을 통해 신화를 이해하려 했는데, 이 같은 시도는 골드만에 의해 오래 전에 제시된 두 세계의 개념에 따라 이해된 창조신화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학적 이해”는 초등학교 상급반의 아동들로부터 발견되는 현상이었고, 그것은 “신화적 이해”와 상충된다는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인식의 변화이었다.

3 단계: 창조신화에 관한 마지막 형태의 이해는 주로 “상징성”에 근거한 이해였다. 이 경우 단지 소수의 아동만이 창조신화에 대한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창조신화와 같은 상징적 표현으로써 기술된 문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서술하여, 비록 신화의 상징적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소수의 고학년의 학생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계시켜 찾아내려는 강한 신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어의 연구 결과이다.³³⁾

33) J. E. Greer, "The Child's Understanding of Creation," *Educational Review*, 24 (1972), pp. 99-110.

위의 연구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종교적 신화를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종교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과학이 종교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때문에 “신화”에 관한 이해는 과학적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이에 반해 아직 신화를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느끼며 접하게 되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신화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나 상충으로써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 과학도, 종교적 신화의 경우처럼, 신화서사적인 사고(mythopoetic thinking)를 - 예를 들면 우주가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종말을 향해 가는 우주(running down universe)”의 개념과 같이 - 제공한다. 이것을 아동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인지적 차원의 교육과 도움이 아동들을 위한 종교 교육의 현장에서 요청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란과 그리어의 연구로부터 발견되는 또 다른 시사점은 기독교적 신화의 사용에 관한 것인데, 곧 타종교의 신화와 기독교적 신화의 내용적,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적 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은 골드만의 연구 결과로부터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어린 연령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화들이 있다는 것과, 그 신화들은 종교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서 기능하며, 기독교적 신화의 이해는 다른 유형의 신화를 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그 수준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3.3.성경 본문에 관한 아동의 이해

3.3.1. 종교적 개념에 관한 이해

아동의 연령상 차이는 성경 본문의 이해 정도의 차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성경에 기록된 추상적인 의미의 “종교적 개념,” 이를테면 영혼, 천사, 사랑, 자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함에 있어 아동들은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선과 악, 혹은 천당과 지옥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그에 관한 서술은 아래와 같다.

데니슨(Denison, 1962)의 연구에 따르면, 런던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8-10세의 아동들은 종교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가 제

34) F. D. Doran, *Myth, Bible, and religious education*, PhD thesis, University of Exeter (1978).

시한 설문지는 영혼(soul), 천사(angel), 행동(actions), 예배(worship), 그리고 사랑(love)과 같은 상징들(symbols)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는데, 응답자 중 과반수의 아동들은 위의 종교적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에 반해 자비(mercy) 또는 겸손(humbleness)과 같은 “속성”에 관한 추상적 용어나 개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도 부쓰(Booth, 1965)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만 10세 아동의 대다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해석적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 단지 소수의 아동만이 그에 관한 의구심과 개념적 혼란을 지녔다고 지적되었으며, 그 후 그들은 이 주제에 관한 상징적 사고를 시작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신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도 위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었다. 데니스(Daines, 1966)에 의하면 만 12-16세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본성, 기적, 천당과 지옥, 선과 악에 대해 전통적인 이해에 의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 그들은 그러한 신학적 개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상당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본성에 대해 의심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을 설명하는 종교적 서술 체제가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emotive) 것에 불만스러워 했다. 신학적 개념에 관한 그들의 이해와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확, 불합리, 그리고 혼란된 상태로 서술되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태도는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회의적인 특징을 보였다.³⁵⁾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 서술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특기할 만하다. 만 11-15세의 영국 웨일즈 지방 학생들이 지니는 종교적 신념(belief)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쿠켄(Kuhken)과 아몰드(Amold, 1944)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점차 불확실해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적 신념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남녀간의 차이”가 주요 변수로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의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동의 인지 발달 능력이나 수준 뿐 아니라 성별의 차이와도 관련된 것이라 해석되는데, 이는 아직 학문적인 차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기는 하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 서술체제의 수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⁶⁾

35) A. L. Simmon and L. D. Ward, "Age, sex, intelligence, and religious beliefs in 11- to 15-year old pupils," *Irish Journal of Education* 9 (1975), pp. 108-114.

3.3.2. 종교적 언어의 실제적 의미 발견

종교적 언어는 “종교적 성숙” 및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성숙”과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 보스(R. G. Bose, 1929)는 만 8-18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교적 언어의 실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성숙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단지 제한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종교적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종교적 언어의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적 언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종교적 언어”의 모호성(vagueness)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실제적 경험 영역이 좁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아동들은 특별한 날 또는 특정의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명칭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회심(conversion), 구세주(Savior), 또는 기독교인(Christian)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은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애매모호성에 근거한 이해상의 혼란을 표출하였다. 이 같은 개념적 혼란현상은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곧 만 8세의 아동의 이해는 고학년 아동들의 이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교회 학교의 참석률은 학습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반해 교회의 소속의식은 긍정적인 학습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³⁷⁾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과의 상호 관련성은 머피(1978)의 비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는, 아래의 분류가 보여주듯, 특정 주제에 관해 5가지의 종교적 언어로써 구성된 3가지 유형의 종교적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아동들의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려 했다.

- (A) 선함(good), 악함(bad), 진실함(true), 사악함(evil), 잘못(wrong)
- (B) 찬송가(hymn), 교회(church), 성경(Bible), 성당(cathedral), 기도(prayer)
- (C) 하나님(God), 예수(Jesus), 천사(angel), 악마(Devil), 사람(Man)

그는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종교적 개념을 다섯 가지의 종교적 언어로써 분류한 후, 각각 (A)-(B)-(C)를 연결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 가

36) Ibid.

37) R. G. Bos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24 (1929), pp. 831-837.

장 적절한 짝을 맞추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곧 만 6세의 아동들은 각 그룹의 언어(단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 언어(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만 8-10세의 아동들은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보였는데, 이를테면 그들은 종교적 언어(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특수하게 관련된 언어의 개념들을 구별하여 이를 유형별로 조직하는 능력도 보였다.

머피는 같은 연구를 통해 유사한 개념의 언어를 짝맞추는 능력 뿐 아니라 상호 구별되거나 대조적인 언어를 구별하는 아동의 능력도 밝혀보려 했는데, 그 연구는 선함(good)-악함(bad)과 같은 쌍의 언어 혹은 개념들이 사랑(love)-미움(hate)과 같은 유형의 언어 혹은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만 6-10세의 아동들은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 관련성을 주장했고, 특히 아동들의 종교적 사고 발달은 종교적 언어의 의미 파악 및 인지 발달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³⁸⁾

3.3.3. 다양한 성경 번역에 대한 이해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의 이해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예츠(J. R. Yeatts)와 린덴(K. W. Linden, 198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6가지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곧 King James Version, Living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English Bible, The English Bible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독교 인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해의 정도 차이를 규명하려 했다.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학적으로 보수적 혹은 진보적 입장의 차이는 성경 이해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2) 현대판(modern versions) 번역들은 King James Version보다 그 이해가 용이했다. (3)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의 구절보다는 Living Bible과 Today's English Version의 구절이 더욱 쉽

38) Murphy, op.cit.; 성경 번역에 관한 아동의 이해에 관해서는 Beiswanger(1930) 연구가 도움을 준다. 그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자료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긍정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대다수의 아동들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개의 친숙한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 내용이 만 9세 이전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그 반면, 만 6세 아동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몇 개의 종교적 개념만을 습득했을 뿐이며(Josephia, 1961), 더구나 만 5세 이전에는 그 이해마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D, J. Ludwig, T. Weber, & D. Iben, "Letters to God: a study of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 (1974), pp. 31-35 참조.

게 상기되었다. (4) 이야기 문학(narrative literature)의 이해에 있어서는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동반하지 않았다. (5) 성문서의 이해에 있어서는 Living Bible이 King James Version 또는 New English Bible보다 더욱 용이했다.

1988년 발표된 예츠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념적 인식과는 달리, King James Version이 다른 성경 번역서보다 쉽게 기억되고 암송되는 언어로서의 효과를 지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담화적 구절(narrative passage)의 회상에 있어서는 다른 번역들보다 The English Bible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그 다음 Today's English Version의 순서로 나타났다.³⁹⁾

4. 결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 본 글은 “성인을 위한 성경”과 구별되는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맥락에서 아동기의 종교심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본 글에서는 아동기의 인지 발달 과정과 하나님 개념, 그리고 아동기의 신앙 개념의 발달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아동의 성경 본문에 관한 이해 능력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글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발표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 연구 중에는 종교적 개념과 성경적 언어에 관한 아동기의 특징,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아동기의 이해의 수준 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 아동기의 종교심리적 특징과 그와 관련된 성경에 대한 이해형태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글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서양 사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를 한국 사회의 아동과 그들의 종교심리적 특징을 추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들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종교심리적 특성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글은 이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 시 고려해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과 관련된 아동의 인지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앞 서 서술한 바

39) J. R. Yeatts and K. W. Linden, "Text comprehension of various versions of Bib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 (1984), pp. 1-18.

와 같이,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나 물활론(animism)적 인지 방식에 따라 하나님 개념이나 기도 개념 등을 형성하는 아동기의 특성을 간과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편집하거나 번역할 경우, 아동의 신앙성숙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자료로서 활용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에 부연할 점은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과 번역과 편집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종교적 지식이나 개념형성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의 총체적(holistic) 차원의 성숙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종교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주로 “인지 발달(cognitive development)”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간행될 “아동을 위한 성경”은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총체적 “신앙 발달(faith development)”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할 “아동을 위한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동들의 인지 활동과 정서 활동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재적 정의”에 대한 이해 형태나 또는 “기도”에 관한 개념 구성에 있어 대다수의 아동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객관화시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 달리 표현하여, 추상화시킨 논리적 사고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적 대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 생각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때,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은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정서적 활동과 더욱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⁰⁾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지식이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성경 편집보다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아동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상과 직접 연결시켜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유, 은유, 신화”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하는 형태의 성경 편집 양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의 번역과 편집은, 단지 종교적 내용의 소개나 전수에만 그 주요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아동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서적 활동의

40) 아동기에 보이는 정서 발달(affective development)의 형태는 그들의 종교적 개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용어 “정서 발달”이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의 특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니게 되는 정서적 특징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미술, 음악, 무용이나 창의적 media 등을 통해 지니게 되는 심미적(aesthetic) 차원에서의 특징을 지칭한다. Jerry Aldridge and Jean Box, “Moral and Affective Dimensions of Childhood,”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 pp. 82-101(특히 pp. 92ff.) 참조. 또한 아동들의 신앙 발달 형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서발달의 형태와 그 발달 과정에 관한 심도 깊은 최근의 연구에 관해서는,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pp. 89ff. (Part II) 참조.

효과적인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다양하게 구별되는 아동의 “사회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을 성인기와의 상대적 비교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환경적 요인”보다는 “연령의 차이를 축으로 삼는 선형적/구조적 요인”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이 새롭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가 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 이는 사회환경적 차이(이를테면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 형태를 우선 시하는 관습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층, 문화, 거주 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중시하는 맥락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은 단순히 언어 뿐 아니라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상징(symbol)으로써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림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 세 번째의 제언처럼, “범문화적 접근”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범문화적 접근”이란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림이나 상징이 특정의 계층이나 성, 그리고 인종이나 지역 주민의 우월성을 은연중 인정하는 비의도적 가치(hidden value)를 반영하지 않는 접근 양식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소개되어온 성경의 그림은 대부분의 경우, 평민보다는 귀족을, 여성보다는 남성을, 혹은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을 은연중 존중하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의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전수시키고 있는데, 이 같이 왜곡된 형태의 잠재적 이념(hidden ideology)이 더 이상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경 내용의 소개를 위해 사용될 “그림”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접하는 아동들의 “신앙적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림”이나 “삽화”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와 - 즉 계층, 인종, 남녀간의 불평등 현상을 당연시하는 사회와 - 현격히 구분되는 21세기의 사회상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편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포도에 있어 인종, 성별, 계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일이며, 가능할 경우 한국인의 모습이 “아동을 위한 성경”의 그림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